

태양광, 수요회복 기대 “김칫국”

태양광 패널 설치 증가에 폴리실리콘 반등 ... 공급감소로 일시적

태양광 관련 주식이 상승탄력을 받고 있다.

1월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OCI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5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한화케미칼 7.65%, 웅진에너지 5.91%, KCC 4.35% 급등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성엘에스티가 5.62%, SKC솔믹스가 3.76% 상승했다.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세는 최근 세계 태양광 시장의 수요회복 조짐이 잇따라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11년 12월에 월별기준 사상 최대인 3GW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으며, 영국의 2011년 태양광 패널 설치도 762MW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 에너지 당국은 2012년 3G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설비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1월10일 발표했다.

세계수요 회복 조짐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 주식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실리콘(Polysilicon) 가격 상승세도 태양광 관련 주식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생산원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공급물량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자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kg당 30달러 수준을 회복했고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관련 주식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증권 이다솔 연구원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조짐이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며 “OCI의 미국 자회사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주가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2>